KIA 방망이 더 강해졌다…주축 이탈에도 화력 증강

KIA 타이거즈 결산 〈2〉 타격

팀 득점 101점·홈런 30개 증가…장타율 리그 1위
김도영 45홈런·나성범 31홈런…중심타선 활약
카스트로 21홈런 88타점…가을야구서도 해결사
박재현 성장·한준수 타격 회복…김민규 주루 활약
타순별 공격력 편차 뚜렷…김호령·김태군 거취 변수


김도영


나성범


카스트로 〈KIA 타이거즈 제공〉

지난해 KIA 타이거즈는 홈런을 많이 치고도 득점권에서 약했다. 팀 홈런은 리그 2위였지만 득점권 타율은 최하위였다. 올해는 이 약점을 상당 부분 메웠다. 김도영이 부상에서 돌아왔고 나성범도 제 모습을 되찾았다. 외국인 타자와 젊은 선수들의 활약까지 더해지면서 타선의 힘이 한층 강해졌다.

KIA는 올 시즌 769점을 뽑아 지난해보다 101점 더 득점했다. 이 부문 순위도 리그 6위에서 4위로 올라섰다. 홈런은 174개로 30개 늘었다. 2년 연속 2위다. 장타율도 0.435로 2년 만에 1위를 탈환했다.

특히 지난겨울 중심타자 최형우와 주전 유격수 박찬호가 이적한 가운데 거둔 성과다. 35홈런을 때렸던 외국인 타자 위즈덤도 팀을 떠났다. 주축 선수들의 공백을 메우고도 장타력이 더욱 강해졌다.

공격 지표도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팀 타율은 0.258에서 0.271로 상승했다. 팀의 공격 생산력을 나타내는 wRC+는 리그 3위에서 1위로 뛰었다. 단순히 홈런만 늘어난 것이 아니다.

득점권 타격에서도 변화가 선명했다.

지난해 0.250이었던 득점권 타율은 올해 0.283으로 높아졌다. 홈런 증가와 함께 총득점이 100점 넘게 늘어난 배경이다. 찬스에서 주자를 불러들이는 능력이 한층 좋아졌다.

가장 큰 힘은 김도영의 부활이다.

지난해 부상으로 30경기 출전에 그쳤던 그는 올해 135경기를 뛰었다. 타율 0.308에 45홈런 118타점을 기록하며 홈런왕에 올랐다. 정규시즌 최종전에서는 결승 투런포로 팀의 3위 확정을 이끌었다. LG와의 준플레이오프에서도 홈런 3개를 몰아치며 시리즈 MVP를 차지했다.

나성범의 반등도 빼놓을 수 없다.

지난해 82경기에서 10홈런에 그쳤던 그는 올해 140경기를 소화했다. 타율 0.303에 31홈런 97타점을 올렸다. 시즌 중반에는 장타를 잇달아 터뜨렸다. 김도영과 함께 나란히 30홈런을 넘겼다.

외국인 타자 카스트로도 99경기에서 타율 0.327, 21홈런 88타점으로 제 몫을 했다. 4월 말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탈했다. 그의 공백은 단기 대체 선수 아데를린이 10홈런 31타점으로 메웠다. 한때 퇴출설이 불거졌던 카스트로는 6월 복귀 후 두 달 연속 4할대 타율을 작성했다.

가을야구에서도 해결사로 나섰다. 삼성과의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선제 적시타와 투런 홈런을 터뜨렸다. 경기 MVP에도 선정됐다.

김도영과 나성범, 카스트로가 정규시즌에서 합작한 홈런은 97개다. 팀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

올 시즌 KIA 최고의 히트상품은 박재현이다. 지난해 58경기에서 5안타에 그쳤던 그는 올해 132경기를 뛰었다. 타율 0.293에 19홈런 69타점을 올렸다. 도루도 21개를 성공했다. OPS는 0.802에 달했다. 주로 테이블세터로 나서 공격의 활로를 열었다.

포수 한준수도 타격감을 되찾았다. 지난해 0.225였던 타율은 올해 0.281로 높아졌다. 장타율과 출루율 모두 4할을 넘겼다.

김선빈은 130안타를 때리며 타선의 연결 고리 역할을 했다. 출루율은 0.386이다. 김호령도 140안타·13홈런·68타점으로 힘을 보탰다. 세 부문 모두 개인 한 시즌 최고치다.

주루에서는 신인 김민규의 활약이 눈에 띄었다. 15차례 도루에 성공했다. 성공률은 88.2%다. KIA의 팀 도루 성공률도 81.6%로 리그 1위다. 지난해보다 도루가 7개 늘었다. 시도 횟수는 리그에서 3번째로 적었다.

아쉬운 기록도 남았다. 병살타는 지난해보다 12개 늘어난 108개다. 대타 타율도 0.301에서 0.234로 하락했다. 주전 타선의 화력에 비해 교체 자원의 공격력은 부족했다.

타순별 공격력도 편차가 크다.

3-5번 타순은 홈런 98개를 합작했다. OPS도 0.912로 리그 1위다. 반대로 1-2번 타순의 타율은 0.266으로 9위에 머물렀다. 출루율(0.323)도 리그 최하위다. 하위 타순(6-9번)은 OPS 0.699로 5위에 자리했다.

올겨울에는 계약 변수도 있다. 외야수 김호령은 FA 자격 취득을 앞두고 있다. 포수 김태군도 올해를 끝으로 비FA 다년계약이 종료된다. 김호령은 올해 141경기에 출전하며 외야의 한 축을 맡았다. 김태군은 포수 수비 기여도(RAA) 2.45로 리그 3위다. 두 선수의 거취에 따라 내년 외야와 포수진 구성도 달라질 수 있다.

올 시즌 KIA는 장타력과 득점권 타격을 함께 끌어올렸다. 박재현의 성장과 한준수의 타격 회복도 수확이었다.

내년에는 상위 타순의 출루 능력부터 높여야 한다. 일부 타자에게 집중된 공격 부담을 나눌 필요가 있다. 결국 타순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관건이다. /주홍철 기자

광주은행 안산·오예진·최미선, 2차 관문 통과

2027 양궁 국가대표 2차 선발전, 순천시청 유시현도 합류…컴파운드 전남광주특별시청 권나래 전남광주 '유일'


2027 양궁 국가대표 2차선발전을 통과한 광주은행 텐텐양궁단 오예진(왼쪽부터), 안산, 최미선.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 텐텐양궁단 전·현직 국가대표 3인방 안산, 오예진, 최미선이 2027 콜롬비아 메데인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국가대표 선발을 위한 2027 양궁 국가대표 리커브 2차 선발전을 통과했다.

'도쿄올림픽 3관왕' 안산은 지난 4일 경북 예천진호국제양궁장에서 끝난 여자부 2차선발전에서 배점 합계 90.5점으로 종합순위 4위를 기록했다.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태극마크 오예진은 배점 합계 75점으로 10위, 2016 리우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최미선은 배점 합계 60점으로 19위에 자리했다. 순천시청 유시현도 24위로 합류했다.

이번 2차선발전은 지난 9월 진행된 1차 선발전을 통과한 선수들과 아이치·나고야 국가대표 등 남녀 각 64명이 출전해 각 종목별 1-3회전 경기후 상위 남녀 32명을 가린 후 4-6회전을 치러 남녀 각 24명을 선발했다.

강민진(경희대)이 112.25점으로 1위를 기록했으며, 유수정(현대백화점)이 99.25점으로 2위, 윤가영(홍성여고)이 97.5점으로 3위를 차지했다.

남자부에서는 김선우(코오롱엑스텐보이즈)가 배점 합계 109.25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서민기(현대제철)가 107.5점으로 2위, 구본찬(현대제철)이 103.75점으로 3위에 올랐다.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주역인 김제덕(예천군청)은 102.25점으로 4위, 김우진(청주시청)은 102점으로 5위, 이우석(코오롱엑스텐보이즈)은 60.25점으로 16위를 차지했다.

컴파운드 남자부에서는 김종호(현대제철)가 163.5점으로 1위, 여자부에서는 박예린(한국체대)이 165.5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전남광주 선수로는 유일하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권나래가 여자부 16위에 자리하며 태극마크 도전을 이어간다.

이번 선발전을 통과한 각 부문별 24명의 선수들중 상위 8명은 진천선수촌 동계훈련에 입촌해 동계훈련을 진행한다. /박희중 기자


나주 전남국제사격장에서 진행 중인 2026 사격 꿈나무선수 동계합숙훈련에 참가한 공기소총 선수들이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내일은 태극마크…꿈 향해 쏜다"

차세대 한국 사격 주역들, 나주 전남국제사격장에서 동계훈련 구슬땀

차세대 한국 사격 주역들이 나주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전남도체육회는 5일 "대한사격연맹이 주관하는 '2026 사격 꿈나무선수 동계합숙훈련'이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8일까지 나주 전남국제사격장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동계합숙훈련은 우수한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꿈나무 선수들에게 국내 최고 수준의 사격 시설에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해 차세대 국가대표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합숙훈련단은 김정안(경기 일반) 전담지도자를 비롯해 김성호, 이희석, 정선안, 손양화, 이은수, 임태수 등 전임지도자 6명과 트레이너 1명,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의 유망주 선수 중 발탁된 공기소총 20명, 공기권총 20명 등 총 40명의 선수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 전국소년체전 금메달리스트 김대현(담양중 2)도 동계전훈에 참가, 태극마크의 꿈을 키우고 있어 눈길을 끈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대한민국 사격의 미래를 이끌어갈 꿈나무 선수단이 전남국제사격장을 찾아 훈련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선수들이 안전하고 최적의 환경에서 기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이번 훈련을 계기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사격 전지훈련의 메카로 더욱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22년을 한결같이'…전남·서울, 생활체육 화합 한마당

오는 7일까지 '2026 전남·서울 생활체육교류' 전 열려

전남과 서울의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스포츠로 우정과 화합을 굳건히 한다.

전남도체육회는 5-7일 서울특별시 일원에서 '2026년 전남·서울 생활체육교류' 행사를 개최한다.

전남도체육회와 서울시체육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교류전은 2004년 체결된 전남도-서울특별시의 우호교류 협약에 따라 양 지역 생활체육 동호인간 우의를 증진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격년제로 방문·초청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일원에서 서울시선수단을 초청해 성황리에 교류전을 치렀다. 올해는 전남선수단이 서울을 방문해 교류를 이어가며 양 지역간 변함없는 우정과 결속을 확인하는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올해 교류 행사에는 전남도체육회 본부임원 10명과 검도(12명), 궁도(12명), 정구(14명), 테니스(12명) 등 4개 종목 선수단 50명 등 총 60명의 전남선수단이 참가했다.

행사 1일 차인 5일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환영식을 시작으로, 2일 차인 6일에는 성북종합레포츠타운(검도), 공항정(궁도), 수락산스포츠타운(정구), 반포종합운동장(테니스) 등 서울시내 각 종목별 경기장에서 열띤 친선경기를 진행하고, 서울시체육회 수탁시설인 서울어울림체육센터, 서울시산악문화체험센터, 목동 빙상장을 방문, 운영 현황을 둘러볼 예정이다.

7일에도 문화탐방에 이어 환송식에서 석별의 아쉬움을 나눈 뒤 안전한 귀향길에 오른다. /박희중 기자

"이변은 없다"…'퀸' 안세영 52연승 질주

코리아오픈, 레차나 완파 8강 진출

98%를 넘어서는 경이로운 승률로 안방에서 시즌 11번째 우승 트로피를 정조준하는 안세영(삼성생명)이 순항을 이어갔다.

여자 단식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5일 전남 광주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코리아오픈 슈퍼 500 대회 16강전에서 카루파테반 레차나(28위·말레이시아)를 36분 만에 2-0(21-10 21-12)으로 완파했다.

연이은 강행군 여파로 직전까지 출전을 고심했던 안세영은 가벼운 몸놀림으로 32강전에 이어 이날 16강에서도 40분 이내에 가볍게 승부를 마무리했다. 1, 2게임 모두 5연속 득점으로 쾌조의 출발을 알린 안세영은 시종일관 주도권을 내주지 않았다.

상대의 빈틈을 찌르는 정교한 공격과 셔틀콕의 궤적을 미리 읽어내는 듯한 철벽 수비를 앞세워 상대를 속절없이 무너뜨렸다.

이날 승리로 안세영은 올 시즌 왕즈이(3위·중국)에게 단 한 번 패한 것을 제외하고 52연승을 내달렸다. /연합뉴스